

## 종족 현상의 다층적 맥락: 에티오피아 아셀라 타운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 병 수

(한국외국어대학교)

### ◆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본 연구자가 에티오피아 아셀라 타운에서의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종족 현상을 다층적 맥락에서 살펴보는 데 있다. 생태학적 조건, 양대 종족의 숫자상 균형, 빈번한 종족 외혼 및 '젓 먹이기'라는 사회문화적 관행의 영향 등으로 인해, 이 타운에서는 집단적 수준의 종족 갈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의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아셀라에서는 지배 종족에 의한 차별과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개의 제보자는 종족 외혼이 종족 집단 및 공동체 구성원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이한 종족 문화를 습득하고, 사람들 간의 관용 정신을 배양하고, 혼종적(다종적) 종족 정체성을 가진 우수한 2세를 생산하는 데 기여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제보자는 종족 외혼이 그 당사자의 이기적인 선택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종족 정체성을 손상시키므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상당수의 제보자는 현재 진행 중인 오로모화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 여기고 있는 반면, 일부 제보자는 오로모화를 강제성, 피상성 및 생존 전략의 맥락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주제어 : 아셀라 타운, '젓 먹이기' 관행, 종족 차별, 종족 외혼, 종족 정체성, 오로모화

\* 이 논문은 201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362-2010-1-B00003).

## 1. 머리말

20세기 중반 무렵 수많은 연구자는 근대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종족 현상이 점차 약화되거나 소멸할 것이라 전망했다.<sup>1)</sup> 이러한 판단은 종족적 유대가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에 근거해 있었다. 그러나 종족 현상은 21세기에도 약화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두드러지고 있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것은 종족성과 종족 정체성이 사람들의 근원적 성향뿐만 아니라 실제적 필요에 부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종족 현상은 경험적으로 아주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역설적이며 수수께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sup>2)</sup> 이것은 종족성의 부침(浮沈), 소멸 및 재생이 개인이나 집단이

- 
- 1) 이러한 견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라. Donald L. Horowitz, *Ethnic Groups in Conflic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Craig Calhoun, "Nationalism and Ethnici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9, 1993, p.212; Robert H. Bates, "Ethnicity, Capital Formation, and Conflict," Paper presented at the Festschrift Conference for Myron Weiner, Kellogg Institute, September 24-26, 1999, p.3; Will Kymlicka, "Nation-building and Minority Rights: Comparing West and East,"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6(2), 2000, p.184; Philip Q. Yang, *Ethnic Studies: Issues and Approaches*, New York: State of New York Press, 2000, p.40; Joseph Ruane and Jennifer Todd, "The Roots of Intense Ethnic Conflict May Not in Fact Be Ethnic: Categories, Communities and Path Dependence," ISSC Working Paper 17, Institute for the Study of Social Change, University College Dublin, 2003, p.17; Ukoha Ukiwo, "On the Study of Ethnicity in Nigeria," CRISE Working Paper No. 12, Centre for Research on Inequality, Human Security and Ethnicity, University of Oxford, 2005, p.6.
- 2) 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논의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라. Maurice Freedman, "Ethnic Puzzles," *New Community* 5(3), 1976; Thomas Hylland Eriksen, "The Cultural Contexts of Ethnic Differences," *Man* 26(1), 1991, p.131; John Hutchinson and Anthony D. Smith, "Introduction," *Ethnicity*, ed. by John Hutchinson and Anthony D. Smi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7; Michael Mann, *The Dark-side of Democracy: Explaining Ethnic Cleans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23; Lore Ruttan et al., *Ethnic Interactions: Analysis of a Sample of Boundaries*,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2006, p.16; Eliana La Ferrara, "Family and Kinship Ties in Development: An Economist's Perspective," Paper prepared for the Fifth AFD/EUDN Conference, Paris, December 5, 2007, p.2; Amanda Lea Robinson, "National versus Ethnic Identity in Africa: State, Group, and Individual Level Correlates of National Identification," Prepared for

경험하는 사회·경제·정치적 존재 조건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족 현상은 다층적·다면적 맥락에서만 아니라 역동성과 변화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에티오피아는 19세기 후반 메넬리크 2세(Menelik II: 1889-1913) 황제의 남하 전쟁을 통해, 오늘날 종족 관계의 뼈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여타 다종족 사회와 마찬가지로, 에티오피아에서 종족 현상은 복잡한 양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지역적 편차도 크다. 이러한 현상은 지리적·생태학적 조건, 역사적 경험, 사회·경제적 변화, 종족 구성, 정치 지형 등에 기인한다. 특히, 1990년대 초반에 도입된 종족 연방주의(ethnic federalism)로 인해, “모든 국가 구조, 자원 분배 및 정치권력의 종족화(ethnicization)”<sup>3)</sup>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종족적·언어적 다양성을 관리하고 종족 갈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종족 연방주의가 종족 집단 간 경쟁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족 연방주의의 이상과 현실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sup>4)</sup> 게다가 2015년 하반기부터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sup>5)</sup>는 종족 정체

---

Working Group in African Political Econom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December 11, 2009; Vesna Bojicic-Dzelilovic, “The Politics, Practice and Paradox of ‘Ethnic Security’ in Bosnia-Herzegovina,” *International Journal of Security & Development* 4(1), 2015.

- 3) Teferi Lubo, “The Post 1991 ‘Inter-ethnic’ Conflicts in Ethiopia: An Investigation,” *Journal of Law and Conflict Resolution* 4(4), 2012, p.66.
- 4) 그간 상당수의 연구자는 에티오피아의 종족 연방주의가 안고 있는 제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왔다. 그들의 공통된 견해는 종족 연방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라. 설병수, 「에티오피아의 종족 연방주의와 종족 갈등」, 『한국아프리카학회지』 43집, 2014; Habtu Alem, “Ethnic Pluralism as an Organizing Principle of the Ethiopian Federation,” *Dialectical Anthropology* 28(2), 2004; Lovise Aalen, “Ethnic Federalism and Self-determination for Nationalities in a Semi-authoritarian State: The Case of Ethiopia,” *International Journal on Minority and Group Rights* 13(2-3), 2006; Jon Abbink, “Ethnicity and Conflict Generation in Ethiopia: Some Problems and Prospects of Ethno-regional Federalism,” *Journal of Contemporary African Studies* 24(3), 2006; Wondwosen Teshome and Jan Záhofík, “Federalism in Africa: The Case of Ethnic-based Federalism in Ethiopia,”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Sciences* 5(2), 2008, pp.8-12; Semahagn Gashu Abebe, “The Dilemma of Adopting Ethnic Federal System in Africa in Light of the Perspectives from Ethiopian Experience,” *Journal of African Studies and Development* 4(7), 2012;

성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원래 종족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요컨대 최근에 들어 에티오피아의 종족 관계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에티오피아의 종족 현상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란 매우 힘들어지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에티오피아 오로미아 주(Oromia Region) 아셀라(Asella)<sup>6)</sup>

---

Teferi Lubo, *ibid.*; Desalegn Amsalu, “Ethiopian Ethnic Federalism: A ‘God-sent’ Opportunity for All Ethnic Groups?” *Modern Africa: Politics, History and Society* 2(2), 2014; Beresa Abera Jebena, “Ethnic Federalism and Democratic Developmental State in Ethiopia: Some Points of Contradi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and Development* 3(7), 2015; Muhabie Mekonnen Mengistu, “Ethnic Federalism: A Means for Managing or a Triggering Factor for Ethnic Conflicts in Ethiopia,” *Social Sciences* 4(4), 2015; Toyin Abe and Olayide Oladeji, “Federalism and Citizenship Dilemmas in Africa: Ethiopia and Nigeria in Comparison,” *Global Journal of Advanced Research* 3(12), 2016; Mehari Taddele Maru, “Causes, Dynamics, and Consequences of Internal Displacement in Ethiopia,” SWP Working Paper FG 8,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Berlin, 2017.

- 5) 최근의 반정부 시위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오로모(Oromo)족의 불만, 국가 지도자들의 부패 및 암하라(Amhara)족의 영토를 강탈한 티그레이(Tigray)족에 대한 불만 때문에 촉발되었다. Asylum Research Consultancy, *Ethiopia COI Query Responses: The Master Plan, OLF Members and Their Family Members, Ill-treatment by State Agents of Oromo Persons Who Are Not Politically Active*, London, 2016. 에티오피아 정부는 2016년 10월 8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가 2017년 8월 4일 해제했다.
- 6) 아셀라는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에서 남쪽으로 175km, 아다마(Adama)에서 남쪽으로 75km 떨어져 있다. 이 타운은 오로미아 주 아르시 존(Arsi Zone)의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이다. 2012년 현재 아셀라의 총인구는 110,088명이다. 이들 중 오로모족(47%)과 암하라족(42%)은 양대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구라게(Gurage)족(6%), 실테(Silte)족(2%), 티그레이족(2%), 월라이타(Wolayta)족(0.8%) 등의 비중은 매우 낮다. 이 타운의 정치적 지배 집단은 아르시 오로모족이다. 이 타운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종족은 실테족이다. 구라게족의 상권 지배력도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경제활동 인구 중 절반가량은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셀라에서도 자원 결사체의 일종인 이더(*iddir*)는 지역민의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셀라 타운의 종교 인구를 보면, 정교 신자(51.2%)가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슬람교 신자(29.9%)와 개신교 신자(17.5%)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 이에 비해 가톨릭 신자(0.004)와 전통 종교 신봉자(0.007)의 비중은 매우 낮다. 이 지역에는 최초의 종교 시설이자 정교 교회인 성 조지 교회(Saint George Church, 1901년 설립)를 비롯하여 9개의 정교 교회가 있다. 이슬람 사원의 숫자는 6개다.

타운의 사례를 통해, 종족 현상을 다층적 맥락에서 검토하는 데 있다. 이 글에서 사용된 일차 자료는 2016년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본 연구자가 아셀라 타운에서 수행한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본 연구자가 아셀라를 조사지로 선정한 데는 세 가지 사실이 크게 작용하였다. 첫째, 오로모족은 에티오피아의 최대 종족(7)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다. 둘째, 아셀라는 오로모족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다양한 종족이 섞여 살고 있다. 셋째, 아셀라는 오로미아 주의 여타 지역에 비해 반정부 시위로 인한 사회 불안이 덜 심각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는 총 38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도 부분적으로 행해졌다. 아르시 존의 중심지인 아셀라는 상업 활동이 매우 활발한 곳이라 인심이 넉넉하지 않았다. 게다가 2015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반정부 시위로 인해, 대다수의 주민은 외부인과 접촉하는 것을 꺼렸다.<sup>8)</sup> 결과적으로, 제보자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면접 약속을 한 주민들 중 일부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면접 장소에 나타나지 않기도 했다. 불안정한 사회·정치 상황 탓에 관공서의 협조를 얻는 것도 결코 용이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조사 표본의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했다. 제보자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성(性), 연령, 종족 배경, 교육 수준, 직업, 종교적 배경 등의 변수를 지속적으로 고려하였다(<부록 1> 참고). 하지만 현지 보조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sup>9)</sup>과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 등으로 인해, 조사 표본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 2017년 8월 초 현재 에티오피아의 총인구는 1억 400만여 명에 이른다. 에티오피아의 '2007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총인구(73,750,932명) 중 오로모족은 34.39%(25,363,756명), 그리고 암하라(Amhara)족은 26.95%(19,878,199명)를 차지한다. Central Statistical Agency of Ethiopia, *The 2007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of Ethiopia: Statistical Report at Country Level*, Addis Ababa: Central Statistical Agency, 2007, p.73.

8) 현지조사 기간 내내 타운 곳곳에는 무장 군인이 배치되어 있었다. 특히, 아디스아바바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매주 토요일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9) 본 연구자의 현지 보조원으로 일한 사람은 아르시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르치고 있는 알레메(Aleme Ashine, 남, 48세, 기혼, 구라계족, 대학원졸, 정교)였다.

하고 제보자들이 제공한 정보는 아셀라 타운의 일반적 현황뿐만 아니라 종족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했다.

이 글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아셀라 공동체의 초기 역사에서 존재했던 ‘젓 먹이기’(breast-feeding) 관행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종족 차별 및 내재적 종족 갈등 양상을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탐구한다. 셋째, 종족 외혼(ethnic intermarriage)에 따른 종족 정체성의 문제를 살펴본다. 넷째, 오로모화(Oromonization) 현상의 제 함의를 고찰한다.

## II. ‘젓 먹이기 관행’: 오래된 지혜

오로모 사회에서는 공동체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전통적 기제가 존재해 왔다.<sup>10)</sup> 미추(*michuu*: 우정), 구마(*guma*: 피의 대가/복수), 와다(*waadaa*: 서약), 루바-바사(*luba-baasa*: 풀어주기/해방하기), 모가사(*moggaasaa*: 입양), 하르마-호드후(*harma-hodhuu/hodhaa*: 젓 먹이기) 등의 관행이 그것이다.<sup>11)</sup> 오로모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에서도 이러한 관행 중 일부가 행해지기도 한다. 이들 관행은 가다 체계(*gadaa system*)<sup>12)</sup>에

10) 일부 학자는 전통적 갈등 해결 체계를 공식적 법체계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Julie Macfarlane, “Working Towards Restorative Justice in Ethiopia: Integrating Traditional Conflict Resolution System with the Formal Legal System,” *Cardozo of Conflict Resolution* 8, 2007; Zigale Tamir Tenaw, “Indigenous Institutions as an Alternative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in Eastern Ethiopia: The Case of the Ittu Oromo and Issa Somali Clans,” *African Journal on Conflict Resolution* 16(2), 2016.

11) Endalew Etefa Tsega, *Conflict Resolution through Cultural Tolerance: An Analysis of the Michu Institution in Metekkel Region, Ethiopia*, Addis Ababa: Organization for Social Science Research in Eastern and Southern Africa, 2002.

12) 가다 체계는 오로모 사회의 가장 특징적인 제도이다. 이 체계는 오로모족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정교한 전통적 조직이다. 그 구성원은 8년마다 주기적인 계승을 통해 충원된다. 가다 체계는 ‘오로모 문화와 문명의 기둥’ 혹은 ‘오로모 문명의 총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Asafa Jalata, “The Oromo in Exile: Creating Knowledge and Promoting Social Justice,” *Societies Without Borders* 6(1), 2011, p.38; Asafa Jalata, “Gadaa (Oromo Democracy): An Example of Classical African Civilization,” *The Journal of Pan African Studies* 5(1), 2012, p.130.

서 파생된 것이거나, 이것과 나란히 작동하고 있다.<sup>13)</sup> 테나우가 지적했듯이 이들 관행이 공동체의 규범, 가치 및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각기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sup>14)</sup>

체가는 베니상굴-구무즈(Benishangul-Gumuz) 주 마타칼(Mätakkäl) 지역의 종족 공동체들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했다. 그는 미추가 종족 갈등을 줄이는 사실에 주목했다.<sup>15)</sup> 테레사는 오로미아 주 남서쇼아 존(South West Shoa고 문화적 관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Zone)의 3개 지역(Tolee, Saden Soddo, Kersa Maallima)에 거주하는 소도(Soddo) 오로모족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행한 바 있다. 그는 소도 오로모족이 구마와 와다 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동체 내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sup>16)</sup>

테제네는 오로미아 주 서쇼아 존(West Shoa Zone)의 단디(Dandi) 지역에 사는 왈리소(Waliso) 오로모족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는 왈리소 오로모족이 공동체 내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마 관행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sup>17)</sup> 아베베는 마칼라 존 내의 4개 지역(Bullen, Dibate, Dangur, Wombera Districts)에 거주하는 시나샤(Shinasha) 족과 오로모족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수행했다. 그는 이들 두 종족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루바-바사 관행이 시나샤족의 삶과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지적한다.<sup>18)</sup>

아래에서 논의될 ‘젓 먹이기’ 관행은 남남인 두 사람이 부모-자녀 관계를

13) Cherana Teressa, “Indigenous Mechanisms of Conflict Resolution among the Soddo Oromo with Particular Emphasis on *Guma* and *Wada* Practices,” M.A. Thesis, Haramaya University, 2016, p.27.

14) Zigale Tamir Tenaw, *op. cit.*

15) Endalew Etefa Tsega, 2002, *op. cit.*; Endalew Etefa Tsega, *Inter-ethnic Relations on a Frontier: Matakkaal (Ethiopia), 1898-1991*,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06, pp.140-146.

16) Cherana Teressa, *op. cit.*

17) Gemechu Dejene, “Some Aspects of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among Waliso Oromo of Eastern Macha,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Guma*,” M.A. Thesis, Addis Ababa University, 2002.

18) Ano Alula Abebe, “The Luba Basa Institution: The Challenge on Shinasha Identity,” *Science, Technology and Arts Research Journal* 1(2), 2012.

맺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기제이다. 블랙허스트는 1969년부터 1971년까지 발레 주(Bale Province)의 툴라마(Tulama/쇼아(Shoa) 오로모족) 공동체에 대한 인류학적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이곳에서도 ‘젓 먹이기’ 관행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젓 먹이기에 관한 나의 정보는 그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 … 나는 이 공동체에서 젓 먹이기의 만연에 관한 그 어떤 일반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sup>19)</sup>고 언급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그 당시 이 공동체에서는 ‘젓 먹이기’ 관행이 소멸의 길에 접어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체가의 연구에 따르면 구무즈(Gumuz)족, 시냐샤족, 아가우(Agaw)족, 오로모족, 암하라족이 섞여 사는 마타칼에서도 이 관행이 행해졌다.<sup>20)</sup>

본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실시한 아셀라 공동체에서도 설립 초기의 상당 기간 동안 ‘젓 먹이기’ 관행이 존재했다. 아셀라에서는 이 관행이 외부에서 이주해 온 사람을 지역 유력자의 자식(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절차와 관련해서 실행되었다. 이 관행은 아르시 오로모족뿐만 아니라 종족의 지도자들에 의해서도 실천되었다. 지역 유력자는 이 관행에 따라 자신의 젓꼭지에 꿀을 바른 후에, 새로운 이주민에게 그것을 빨아 먹도록 했다.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면, 유력자는 새로운 이주민을 생물학적으로 자신의 친자식과 동일한 존재로 여겼다.<sup>21)</sup> 그를 맞이하는 의례(일종의 ‘입사식’)도 행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유력자는 새로운 이주민을 자기 집단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정착에 필요한 토지와 생활 물품도 나누어 주었다. 유력자는 새로운 이주민에게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재산을 상속하기도 했다. 새로운 이주민의 아이들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 보게 마련이었다. 그들은 ‘증인’이 되는 셈이었다.

아셀라 일대에서 이 관행의 유래는 다양한 버전으로 구전되어 오고 있다.

19) Hector Blackhurst, “Adopting an Ambiguous Position: Oromo Relationships with Strangers,” *Being and Becoming Oromo: Historical and Anthropological Enquiries*, ed. by P. T. W. Baxter *et al.*, Lawrenceville, N.J.: The Red Sea Press, Inc., 1996, p.240.

20) Endalew Etefa Tsega, *op. cit.*, 2006, pp.148-151.

21) 그래서 그의 생물학적 친자식과 이 관행을 통해 생겨난 자식 간에는 결혼이 엄격히 금지되었다.



아미노(Amino Edao, 남, 52세, 기혼, 오로모족, 대학원졸, 공무원, 이슬람교)<sup>22)</sup>는 이 관행의 유래와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아셀라에서 110km가량 떨어진 곳에는 게데브아사사(Gedeb Asasa)라는 타운이 있다. 그곳의 어떤 부자는 소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의 소 중 60마리를 훔쳐 달아났다. 그 도둑은 와베(Wabe) 강에 이르자 잠시 머뭇거렸다. 그 사이에 소들은 모두 강을 건넜다. 그러던 중 소 주인이 나타나서, 도둑에게 “내 젖을 줄 테니, 제발 소를 돌려 달라.”고 소리쳤다. 이런 상황에 처한 도둑은 두려운 나머지, 59마리의 소는 주인에게 돌려주고 송아지 한 마리만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도망쳤다.

…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도둑의 마을에서는 해괴한 일이 발생했다. 그 마을 지도자(남성)의 양쪽 가슴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 지도자는 물론이거니와 마을 사람들은 이 해괴한 현상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마을의 마녀(점쟁이)를 찾아가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 그랬더니 그 마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첫째, 이 마을의 누군가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 둘째,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젖 먹이기’를 간청했는데, 그는 그러한 간청을 완전히 수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는 죄를 짓게 되었다. … 그 후 사람들은 ‘젖 먹이기’와 이를 통해 형성된 관계에 더욱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다. ‘젖 먹이기’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모든 사람은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랐으므로, 젖은 모성을 상징한다. 둘째, 정치력과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이런 관행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젖 먹이기’ 관행은 주로 남성 유력자(부자)와 새로운 이주자(빈자) 간에 행해졌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 유력자도 이 관행을 행했다. 물론 남성에 비해서는 그 실천 빈도수가 매우 적었다. 또한 ‘젖 먹이기 어머니’(breast mother)<sup>23)</sup>의 경우에는 젖꼭지에 꿀을 바른 후 그것을 빨아 먹도

22) 이 글에 나오는 모든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현지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혀 둔다.

23) 이 관행을 베푸는 남성은 ‘젖 먹이기 아버지’(breast father)라 불리었다.

록 하는 절차가 생략되기도 했다. 베예네(Beyene Tola, 남, 49세, 기혼, 오로 모족, 대졸, 공무원, 정교)는 자신의 부모가 경험한 이 관행에 대해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우리 부모는 이 관행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다. 테세메(Teseme)라 불리는 암하라족 여성은 아디스아바바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아주 부자였다. 아셀라 타운에도 상당한 규모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우리 가족을 방문했다. 그 당시 우리 아버지는 암하라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어머니는 오로모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암하라어에 능통했다. 어머니는 그녀를 우리 가족 구성원에게 소개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암하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 다음 날 어머니는 그녀를 우리 집으로 초대하여 커피를 대접했다. 어머니는 커피를 손수건에 싸서 그녀에게 주었다. 이러한 행위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하나는 어머니가 위생 관념이 철저하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그녀를 존경한다는 의미였다. 어머니의 이런 행위를 본 그녀는 다시 한번 놀랐다. 그러면서 “당신은 오로모족이 아니다. 당신은 암하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행동도 암하라족처럼 문명화되었다. 내가 당신의 ‘젓 먹이기 어머니’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극진히 대접한 만큼, 나도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겠다.”고 말한 후에, 어머니가 그녀에게 커피를 대접할 때 사용한 그 손수건을 챙겨서 아디스아바바로 돌아갔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 부자 여성은 우리 가족을 다시 방문했다. 그녀는 그 손수건에 나무 씨앗을 싸 가지고 왔다. 그 당시 이 일대에는 나무라곤 없었다. 목초지뿐이었다. 그래서 주민들이 타운 내나 외부를 오갈 때 실만한 나무 그늘이 없어 아주 힘들어 했다. 아버지는 그녀가 준 씨앗을 이 타운에 뿌렸다. 아버지가 이 타운에서 최초로 나무를 심은 사람이 된 셈이다. 또한 그 부자 여성은 우리 가족에게 40헥타르의 땅도 주었다. ... 우리 부모는 그녀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큰딸의 이름을 테세메라 지었다.

이 관행이 기존의 정착민과 새로운 정착민 간, 즉 공동체 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기능했음은 당연한 일이다. 공동체 내의 종족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이가 없는 부부는 ‘젓 먹이기’ 관

행을 통해 아이를 얻기도 했다. 이런 경우에 이 관행을 행하는 사람은 부인이 아니라 남편이었다. 이렇게 얻은 아이는 친자녀처럼 여겨졌다. 또한 고지대 사람들과 저지대 사람들은 이 관행을 통해 경제적으로 상부상조하기도 했다. 일례로 고지대에서 소를 많이 키우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그는 ‘젓 먹이기’ 관행을 통해 사회관계를 맺어 놓은 저지대 사람에게 자신의 소를 팔고, 그에게서 여러 가지 농산물을 사 가곤 했다.

본 연구자가 만난 제보자들 중 대다수는 이 관행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물루게타(Mulugeta Tadesse, 남, 49세, 기혼, 암하라족, 대졸, 공무원, 개신교)와 게네네(Genene Hailesilase, 남, 67세, 기혼 암하라족, 대졸, 사무원, 정교)는 이 관행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과거에 여러 종족이 실천했던 이 관행은 아주 ‘훌륭한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이 관행은 종족 간 관계를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했다. 암하라족과 오로모족은 서로 이 관행을 실천했다. 여타 종족 간에도 이 관행이 행해졌다. 이 관행은 부자와 빈자 간에 흔히 실천되었다. 이 관행에서 후원인(patron)은 피후견인(client)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야 할 책임을 졌다. 이 관행은 당사자들이 새로운 사회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각자가 다양한 정치·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고, 나아가 공동체 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젓 먹이기’ 관행은 개인 간 호혜성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개인들이 후원인-피후견인 관계로 맺어질 경우, 아들로 받아들여진 사람은 그 아버지에게 물질적 원조를 기대하고, 역으로 그 아버지는 그에게서 정치·경제적 지지를 기대했다. 당사자들은 서로에 대한 기대를 결코 쉽게 저버릴 수 없었다. 이 관행에는 ‘신뢰’와 ‘약속’이라는 속성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관행은 아셀라 공동체 내의 다양한 집단 간 유대를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기능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와서는 더 이상 실천되지 않고 있다.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과거와 달리 이 관행을 통해 새로운 이주자에게 땅을 내주거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 관행에 대한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도 이것이 소멸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sup>24)</sup> 하지만 아셀라 공동체의 초기 역사에서 광범하게 실천된 ‘젓 먹이기’ 관행이 종족 집단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모든 공동체의 초기 역사는 이후의 집단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sup>25)</sup> 아셀라에서 실천된 이 관행은 ‘오래된 지혜’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 III. 종족 차별과 내재적 종족 갈등

종족 갈등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현상이자 세계적인 현상이다.<sup>26)</sup> 특히, 20세기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종족 사회에서 종족 갈등은 사회·정치적 불안의 주된 요소로 작용해 왔다. 종족 갈등은 상이한 종족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간·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이해관계를 다룰 때 발생한다.<sup>27)</sup> 에티오피아의 경우에는 19세기 후반 무렵부터 현재의 국가 영토 내에서 다양한 종족 집단 간 접촉이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에티오피아 사회에서도 각종 자원을 둘러싼 종족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종족 갈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셀라는 다양한 종족이 섞여 사는 여타 지역과 약간의 상이성을 보인다. 즉, 이 공동체에서는 집단적 수준의 종

24) 아셀라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베예네(Beyene Tola)는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현재의 정치 체계는 이러한 관행을 더 이상 장려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정부는 이와 같은 오래된 관행을 철저히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장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특정 종족(씨족)이나 개인의 우월성에 거부 반응을 보인다. 정부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25) 본 연구자는 2014년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오로미아 주의 메키(Meki) 타운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타운은 공동체의 초기 역사에서 정교로의 개종 과정에 따른 폭력적 종족 갈등을 경험했다. 이런 불행한 경험은 이후의 종족 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라. Byung-Soo Seol, “The Dynamics of Ethnic Relations in Ethiopia: An Ethnographic Study of Meki Town, Oromia Regional State,” 『한국아프리카학회지』 42집, 2014.

26) Tatu Vanhanen, *Ethnic Conflicts: Their Biological Roots in Ethnic Nepotism*, London: Ulste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2012, p.ix.

27) Tatu Vanhanen, *ibid.*, p.1; Hossien Mohammadzadeh, “The Causes of Ethnic Conflict in Multi-ethnic Societies,” *World Scientific News* 42, 2016, p.157.

족 갈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은 크게 다섯 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첫째, 이 타운의 지배 종족인 오로모족은 토지 등의 생태학적 자원을 둘러싸고, 여타 종족과 갈등을 빚지 않았다. 둘째, 아셀라 지역은 사방이 오로모족의 땅이기 때문에, 집단적 수준의 종족 갈등이 발생할 시에 집단 이주(도피)가 용이하지 않다. 셋째, 이 타운의 양대 종족인 오로모족과 암하라족은 숫자상 균형을 대체로 유지해 왔다.<sup>28)</sup> 넷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젓 먹이기 관행’이 오랫동안 존재했다. 다섯째, 다음 장에서 보게 되듯이 아셀라 공동에서는 종족 외혼이 비교적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 종족의 차별과 위협에 따른 내재적 종족 갈등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종족 연방주의가 도입된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 더욱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것은 종족 연방주의가 종족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알레메(Aleme Ashine)는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종족 차별을 종족 연방주의와 결부시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오로모족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지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다양한 부류의 오로모족, 특히 아르시 오로모족에게서 종족 차별을 심하게 경험했다. 나는 이 지역에서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종족 차별을 더욱 뼈저리게 느꼈다. ... 아셀라 지역 정부의 경우에는 아르시 오로모족이 고위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쇼아 오로모족도 일부 관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 정부에서 비(非)오로모족이 관리로 일하는 경우는 전무하다시피하다. ...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종족 연방주의는 종족 갈등을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 종족 갈등과 종족 차별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보인다.

2016년 8월 19일 본 연구자는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현지 보조원을 대동하고 아셀라 시장으로 갔다. 그곳에서 30대 초반의 의류 장수(남, 33세, 암하라족)를 만났다. 하지만 그와의 면접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는

28) 아르시 지역에서 오로모족과 암하라족의 조우는 19세기 말부터 진행된 메넬리크 2세 황제의 정복 전쟁에서 시작되었다.

면접에 응할 수 없게 된 사정을 설명한 후에, 상당히 흥분된 목소리로, “나는 아르시 오로모족에게서 종족 차별을 심하게 당하고 있다. 내가 아르시 오로모족 출신이 아니라서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가 들려준 사연은 아래와 같았다.

나는 어느 아르시 오로모족 남성에게 상당량의 옷을 팔았다. 그런데 3일 후에 그 남성은 자신이 산 옷들이 마음에 안 드니 환불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바로 환불해 줄 수 없었다. 에쿱(*ekub/lqqub*)<sup>29)</sup>에 이미 출자를 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남성은 나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 후에 아르시 오로모족 출신의 경찰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나에게 “빨리 환불해 주라.”며 위협을 가했다. 나는 “이것은 개인 간 거래인데, 왜 경찰이 개입하느냐?”고 따졌으나, 그 경찰은 “빨리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재미없을 줄 알아라.”며 나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며칠 후에 나는 가까스로 돈을 마련하여 그 오로모족 남성에게 환불해 주고 옷을 돌려받았다. … 그런데 불미스러운 거래 상황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 오로모족 남성이 나를 찾아와서, “어디서 옷을 훔쳤느냐?”며 시비를 걸었다. 그 경찰도 또다시 나를 찾아와서 위협을 가했다. 현재 나는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다.

암하라족 출신의 예우브다르(Yewbdar Masresha, 47세, 대졸, 정교)는 아셀라 타운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후반 여성이다. 그녀는 자신의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종족 차별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침묵하고 있다. 보복이 두려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녀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이 타운은 아르시 오로모족이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곳이다. 아르시 오로모족이 아닌 사람은 직장 내에서 고위직에 오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오로모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재능과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르시 오로모족 출신이 아니라면 결코 고위직에 오를 수 없다. 개인의 능

29) 에쿱은 사업 자금이나 학비 등의 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직되는 모임이다. 그 구성원은 정기 모임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한다. 당첨자는 그날 출자된 돈을 모두 가져가며, 그 후부터 자신이 내야 할 출자금을 갚아 나간다.

력이나 재능보다는 종족 배경이 더 중요하다. 나는 암하라족 출신이라 직장 내의 이러한 현상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간,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르시 오로모족의 보복이 두렵다. 수많은 사람이 나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암하라족 출신의 민다예(Mindaye Kibret)는 아르시대학교의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적십자사(Red Cross)에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 후 그는 직장과 보험회사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기까지, 3년 이상 동안 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고통이 종족 차별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나는 한동안 적십자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그때 나는 근무 중에 자동차 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가 부러졌다. 하지만 나의 직장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내가 보험에 들어 두었건만 보험회사도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나는 자치구 법원(district court)과 존 법원(zonal court)으로 갔다. 이들 법원에서는 오로모어만 통용되었다. 판사는 “오로모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오로모 지역을 떠나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은 엄연히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었다. 헌법 규정을 보면, 오로모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소송에 입할 경우에는 통역자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sup>30)</sup> 나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주 법원(regional court)에 항소했다. 다행히도 주 법원이 내 편을 들어주어 승소할 수 있었다. 나는 직장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내가 승소하기까지는 3년 이상이 걸렸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경제적 고통 등 삼중고(三重苦)에 시달렸다. 한쪽 다리를 못 썼기 때문에 철제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고, 판사의 그릇된 판결에 정신적으로 힘들었으며, 직업을 구하려고 했으나 번번이 실패하여, 심한 가난에 시달렸다. 이 모든 일이 내가 오로모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30) 실제로 에티오피아 헌법 제20조(피고인의 권리) 7항에는 “누구든지 법정 절차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진행되는 경우, 국가 비용으로 통역자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Constitution of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1995.

구라계족 출신의 피카두(Fikadu Huluka, 남, 63세, 기혼, 고졸, 정교)는 아셀라 시장에서 오랫동안 재단사로 일해 온 사람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이 타운에서는 생활 전반에 걸쳐 아르시 오로모족에 의한 종족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 타운에서는 종족 차별이 심각하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그 중 하나는 불공정한 세금 징수에 관한 것이다. 지역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종족은 아르시 오로모족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아르시 오로모족 사업가는 관리들과 짜고, 세금을 거의 내지 않거나 심지어 한 푼도 내지 않는다. … 이처럼 아르시 오로모족 사업가들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 반면, 여타 종족 출신의 사업가들은 수입에 비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여타 종족 출신의 사업가가 제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리가 와서 그의 가게 문을 강제로 닫게 만들기도 한다. … 이 타운에서는 상수도 와 전기를 비롯한 인프라 문제도 심각한데, 이와 관련해서도 관리들의 종족 차별적 행동이 발견된다. 비오로모족 구성원은 전기나 상수도 관련 문제가 생기면, 해당 관공서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한다. 한번 만에 해결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2016년 8월 5일 본 연구자는 아셀라 시장에서 티그레이족 출신의 중년 남성을 만났다. 그는 그곳에서 의류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에게 면접을 요청했더니, 그는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이면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현지 보조원이 그를 여러 차례 설득했으나, 그와의 공식적인 면접은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그는 “최근의 반정부 시위로 인해, 아르시 오로모족에게서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익명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에 와서 암하라족과 티그레이족은 에티오피아 전역에서 수많은 땅을 강탈했다. 현 총리는 월라이타족 출신이라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 티그레이족 출신인 나는 아셀라 타운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티그레이족 정치가의 잘못으로 인해, 내 같은 사람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이 타운에서 종족 간 갈등이 생기면 내가 표적이 된다. 내가 공동의 적이 된다. 티그레이족 엘리트 집단이



현재 에티오피아의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여타 종족은 그들과 티그레이족 전체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나는 평범한 티그레이족 중 한 명에 불과하다. 이곳에 사는 암하라족 구성원도 나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다. 대다수의 구성원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구라계족과 실테족도 이 타운에서 여타 종족, 특히 아르시 오로모족에게서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셀라의 비오로모족 출신들은 삶의 다양한 영역—특히 구직 및 경제 활동 영역—에서 지배 종족에 의한 차별과 위협을 경험하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 비해 집단적 혹은 조직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위협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오로모족—특히 아르시 오로모족—에 의한 차별과 위협은 종족 집단 간 갈등의 저변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5장에서 논의될 ‘오로모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반정부 시위로 인해 아셀라 공동체에서 종족 관계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양상을 역사적 맥락에서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비시니안(Abyssinian)<sup>31)</sup> 지배의 최대 피해자였던 오로모족은 종족 연방주의가 도입된 이후 자신들의 땅(오로미아 주)에서 가해자로 변신했다. 둘째, 최근 들어 에티오피아 사회의 양대 지배 종족인 암하라족과 티그레이족은 집단적 갈등 상황에 직면해 있다. 셋째, 오랫동안 양속 관계에 있던 오로모족과 암하라족은 집단적 연대를 통해 티그레이족에 대항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넷째, 주요 종족 간 새로운 갈등과 연대는 여타 종족의 삶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 IV. 종족 외혼과 종족 정체성

도시화, 산업화, 근대화 및 이주 등은 종족 외혼을 촉진하기 마련이다. 종족 외혼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즉, 한편으론 종족 외혼은 종족 유대를

31) 아비시니아는 에티오피아 정치체의 역사적 핵심 집단으로, 암하라족과 티그레이족을 가리킨다.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지만,<sup>32)</sup> 다른 한편으로 사회 통합의 핵심적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sup>33)</sup> 아르시 존의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인 아셀라 타운은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은 탓에, 다양한 종족 구성원이 섞여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종족 외혼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제보자들 중 대다수는 종족 외혼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종족 외혼은 종족 집단뿐만 공동체 구성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상이한 종족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용의 정신을 배양하며, 보다 우수한 2세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므로 적극 장려될 필요가 있다.

종족 외혼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다. 첫째, 종족 외혼은 종족 간 혹은 공동체 구성원 간 유대를 더욱 강화한다. 둘째, 종족 배경이 다른 부부는 새로운 문화—음식과 언어 등—를 접할 수 있다. 셋째, 종족 외혼은 서로에 대한 관용을 의미한다. 그래서 종족 외혼을 한다고 해도 부부는 각자의 종족 정체성을 전혀 상실하지 않는다. 부부는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종족 외혼을 통해 태어난 자식들은 혼종적(hybrid) 정체성을 지니는데, 이것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더욱 강한 존재의 탄생을 의미한다. (Sinkineh Tilalhun, 남, 48세, 기혼, 암하라족, 대졸, 공무원, 정교/Yeshitila Aseffa, 남, 50세, 기혼, 암하라족, 대졸, 공무원, 정교)

과거와 달리 요즘은 두 사람의 종족 배경보다는 사랑에 토대를 둔 연애결혼과 종족 외혼이 성행하고 있다. 나는 종족 간 상이성이나 구별보다는 유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종족 외혼은 공동체 구성원의 유대를 극대화한다. 그래서 나는 종족 외혼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이다. 나의 여동생은 아르시 오로모족(무슬림) 남성과 결혼했으며, 나의 딸 중 한

32) Morton Weinfeld, "Ethnic Assimilation and the Retention of Ethnic Cultures," *Ethnicity and Culture in Canada: The Research Landscape*, ed. by J. W. Berry and J. A. Laponce,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4, p.244.

33) Richard D. Alba and Reid M. Golden, "Patterns of Ethnic Marriage in the United States," *Social Forces* 65, 1986; Rogelio Saenz *et al.*, "Persistence and Change in Asian Identity among Children of Intermarried Couples," *Sociological Perspectives* 38(2), 1995; Sean-Shong Hwang *et al.*, "Structural and Assimilationist Explanations of Asian American Inter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9(3), 1997; Matthijs Kalmijn, "Intermarriage and Homogamy: Causes, Patterns, Trend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998.

명도 아르시 오로모족(무슬림) 남성과 결혼했다. 이러한 외혼으로 인해 그들은 다중적 종족 정체성(multiple ethnic identity)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그들이 상이한 종족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Aseffa Cherinet, 남, 90세, 기혼, 구라계족, 초졸, 무직, 정교)

하지만 일부 제보자는 종족 외혼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셀라의 지배 집단인 아르시 오로모족뿐만 아니라 신테족에게서도 흔히 발견된다. 그들은 종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도 종족 내혼을 하려는 경향이 비교적 강하게 남아 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종족 외혼은 그 당사자의 이기심에서 비롯되며, 종족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결코 권장할 일이 아니다.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는 암하라족이 모든 고위 공직을 차지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아르시 오로모족 중 일부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부유한 암하라족 출신과 결혼했다. 극소수의 암하라족 역시 이러한 혜택을 누리려고 부유한 아르시 오로모족과 결혼했다. 하지만 전자는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면 이혼하기 일쑤였다. 그 당시 암하라족 출신과 결혼한 아르시 오로모족 중 절대다수는 자신의 종족 정체성을 거의 상실했다. ... 내가 종족 외혼에 반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종족 외혼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만 이루어질 뿐이다. 그들은 종족 정체성 유지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Hussen Beshir, 남, 37세, 기혼, 오로모족, 대졸, 공무원, 이슬람교)

과거에는 종족 외혼이 아주 드물었다. 종족 외혼은 문화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종족 외혼을 하는 것은 '수치'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종족 외혼이 아주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종족 외혼에 아주 익숙해져 있다. 종족 외혼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다. ... 신테족은 여전히 종족 내혼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도 그들은 다른 종족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종족 외혼에 절대 반대한다. 종족 외혼은 종족 정체성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들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 오직 그 당사자들만 이득을 볼 뿐이다. (Lidet Chane, 여, 33세, 오로모족, 기혼, 고졸, 상인, 정교)

또한 일부 제보자는 종족 외혼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종족 외혼의 부정적인 영향도 결코 적지 않다고 주장한다. 킨페(Kinfе Dejene)와 게레메우(Geremew Megersa)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종족 외혼은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상이한 문화와 생활방식 공유, 공동체의 정치적 안정에 기여, 종족 갈등 완화 등이 그것이다. ... 나의 조부모와 부모도 종족 외혼을 했다. 나도 종족 외혼을 했다. 내 딸 중 한 명은 암하라족 남성과 결혼했고, 또 다른 한 명은 구라계족 남성과 결혼했다. 내가 종족 외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종족 외혼의 부정적인 영향도 결코 만만치 않다. 종족 외혼은 종족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결국엔 상실하게 만든다. 나는 오로모어와 암하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 나의 아내는 구라계어와 암하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 하지만 내 아이들은 오직 암하라어만 구사할 수 있다. 더욱이 그들은 종족 정체성까지 점차 상실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구라계족 여성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Kinfе Dejene, 남, 61세, 기혼, 오로모족, 대졸, 상인, 정교)

종족 외혼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종족 외혼은 공동체 구성원 간 연결뿐만 아니라 관용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고양하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나는 종족 외혼에 반대한다. 종족 외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종족 정체성을 점차 상실하기 때문이다. 나는 종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자기 종족의 원래 문화(독특한 문화)와 생활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종족 정체성 유지는 에티오피아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에 크게 기여한다. 물론 종족 외혼과 근대화 등의 영향으로 종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Geremew Megersa, 남, 55세, 기혼, 오로모족, 대졸, 교사, 정교)

이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수행하면서 만난 지역 민들은 종족 외혼 및 종족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첫째, 종족 외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제보자들은 종족 외혼의 장점을 강조한다. 그들은 종족 외혼을 한다고 해서 종족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혼성적 혹은 다중적 정체성을 가질 뿐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종족 외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제보자들은 종족 외혼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정체성 약화나 상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셋째, 일부 제보자는 종족 외혼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언급하면서, 종족 외혼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종족 외혼에 대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제보자들의 이러한 견해 차이는 아셀라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사회 전반의 다양한 변화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근대화와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아셀라 공동체에서도 종족 외혼의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이에 따라 혼성적 혹은 다중적 종족 정체성을 가진 사람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 V. 오로모화, 그 실체는?

에티오피아에서 오랫동안 지배 종족으로 군림해 온 암하라족은 자신들의 언어, 종교 및 문화를 여타 종족에게 강요했다. 이것은 황제 정부가 단일 국가를 창출하기 위해, 아비시니안 문화를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하려는 노력이었다. 이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암하라화’(Amhararization)라 표현된다. 암하라화는 다양한 형태의 착취와 동화 현상을 수반했다.<sup>34)</sup> 이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종족은 오로모족이었다. 그들의 전통문화와 지역 리더십은 심하게 파괴되었다. 아셀라의 지역민 중 대다수—특히 지역 엘리트—도 암하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암하라화를 경험했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중반에 황제 정권이 몰락하면서 일단락 지어

34) 암하라화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Christopher Clapham, “Centralization and Local Response in Southern Ethiopia,” *African Affairs* 74(294), 1975, pp.74-75; Sarah Vaughan, “Ethnicity and Power in Ethiopia,”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Edinburgh, 2003, p.113; Jacobus Gerthardus Van Aswegen, “Language Maintenance and Shift in Ethiopia: The Case of Maale,” M.A. Thesis, University of South Africa, 2008, pp.12-13; Jan Záhorkík and Wondwosen Teshome, “Debating Language Policy in Ethiopia,” *Asian and African Studies* 18(1), 2009, p.85.

졌다.

그 후 1990년대 초반 종족 공동체(종족성)에 토대를 둔 종족 연방주의가 도입되면서, 아셀라의 오로모족은 정치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아셀라에서 태어나 성장했거나 이곳에서 장기간 거주한 비오로모족 구성원은 학교 및 공동체 생활을 통해, 오로모족의 언어 및 가치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이 과정은 ‘오로모화’라 표현된다. 또한 학교 교육을 마치고 이 지역에서 직업—특히 정부 관리직—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오로모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진다. 그래서 대다수의 제보자는 오로모족이 지배하는 아셀라에서 비오로모족의 오로모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여기고 있다.

이 타운은 지배 집단인 아르시 오로모족을 비롯하여 오로모족이 지배하는 곳이다. 그래서 비오로모족 중 대다수가 오로모화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오로모어를 배우고, 오로모 문화와 의례를 따르고 있다. 사람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면 오로모식 해결 방식을 따르기도 한다. 오로모화가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문화와 종족 정체성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Abebe Atomsa, 남, 48세, 기혼, 오로모족, 대졸, 공무원, 정교/Farenjo Tadesse, 남, 61세, 기혼, 오로모족, 중졸, 공무원, 정교)

특정 종족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여타 종족 구성원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지배 문화와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지배 종족 출신과 결혼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종족 정체성을 점차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아셀라 공동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곳의 지배 집단은 아르시 오로모족이다. 그래서 상당수의 비오로모족 구성원은 오로모화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오로모족이라 생각한다. (Kebede Yami, 남, 55세, 기혼, 오로모족, 디플로마, 사무원, 정교)

과거에는 암하라족이 이 땅을 지배했다. 그래서 비암하라족 구성원들은 암하라족의 문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암하라족의 언어를 배우고, 의복을 모방하고, 심지어 이름도 암하라 식으로 바꾸었다. 그들은 암하라화된 것이다. … 오늘날 이 타운 사람들 중

대다수는 오로모화되고 있다. 그들은 오로모어를 배우고, 아이들을 오로모 학교에 보내고, 이름을 오로모 식으로 바꾸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 타운은 오로모족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Kifle Demboba, 남, 61세, 기혼, 오로모족, 대졸, 대학교원, 정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셀라의 지역민 중 상당수는 삶의 과정에서 오로모화를 경험해 왔다.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로모화의 색채가 더욱 짙어지게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람은 혼종적 종족 정체성을 가지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알레메(Aleme Ashine)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나는 세 개의 종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구라계족, 압하라족, 오로모족이다. 나의 아버지가 구라계족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나는 구라계족의 피를 물려받았다. 압하라족이 압제하던 시절에는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종교를 신봉하면서 압하라화되었다. 또한 오로모족의 땅에서 태어나 성장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로모화되었다. 나는 오로모어를 열심히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노력해 왔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소외되거나 주변화되지 않았으며, 오로미아 주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여 졸업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취업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아디스아바바에서 5년간 일을 할 때도 친하게 지낸 사람들은 구라계족이 아니라 오로모족이었다. ... 대개의 사람은 내가 구라계족 출신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내가 구라계족 출신이라고 스스로 밝히기 전까진, 그들은 내가 오로모족 출신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오로모화된 것은 옳은 선택이었다. 압하라족 출신인 나의 아내도 이 타운의 여타 종족 구성원은 오로모화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오로모화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비오로모족 중 상당수는 오로모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오로모족이 되길 원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로 일부 제보자는 자신이 피상적 수준에서 오로모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그들은 자신이 현실적 필요성이나 생존 전략의 차원에서 오로모화되었지만, 종족 정체성까지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역설한다. ‘강요된 오로모화’를 경험해 왔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오로모족의 땅에서 태어나 성장한 내게 오로모화는 불가피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뻗속까지 오로모화된 것은 아니다. 내가 생물학적으로 구라계족 출신이라는 사실은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변하지 않는다. 나는 오로모족의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 피상적으로 혹은 불가피하게 오로모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오로모족에게서 광범하게 발견되는 오로모화는 ‘강요된 오로모화’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Aleme Ashine, 남, 48세)

아셀라는 오로모족이 지배하는 땅이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오로모화가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건물 벽에 페인트칠을 한다고 해서, 그 건물의 본질이나 속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비오로모족 구성원들의 오로모화도 이와 같은 이치이다. 그들이 오로모화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본질까지 바뀐 것은 아니다. (Geremew Megersa, 남, 55세)

나는 이 공동체의 비오로모족 구성원들이 진짜로 오로모화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내가 보기에 이 타운에서의 오로모화는 ‘기회주의적 선택’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오로모화되고 있는 척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것은 과거에 대다수의 사람이 암하라화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과 같다. 나는 이곳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오로모화되고 싶지는 않다. (Yeshitila Aseffa, 남, 50세)

이처럼 암하라족의 지배라는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지배 종족에 의한 영향으로, 대개의 아셀라 지역민은 암하라화와 오로모화를 피할 수 없었다. 암하라화는 위계적인 종족 구조 하에서 진행되었다. 오로모화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암하라화가 전국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데 비해, 오로모화는 지역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오로모족의 땅이라 여겨지는 아셀라의 경우, 암하라화는 과거의 현상이 된 반면, 오로모화는 현재 진행 중인 현상이다. 제보자들 중 상당수는 이곳의 지배 종족인 오로모족의 문화를 습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러한 노력은 생존 전략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제보자는 비자발적 혹은 피상적 오로모화를 언급하면서, 오로모화가 종족 정체성 등의 본질적 측면까지 손상시키진 않는다고 강변한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발생한 반정부 시위에 고무되어, 자신의 원래 종족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과도 결코 무관하



지 않다. 하지만 암하라화와 오로모화의 세례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종족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원래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게 실제로 얼마나 가능할까? ‘희망 사항’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식 변화는 아셀라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전체의 종족 현상을 이해하는 데 적잖은 생각거리를 던져 준다.

## VI. 맺음말

아프리카의 여타 다종족 사회와 마찬가지로, 에티오피아에서도 종족 현상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에는 19세기 후반부터 진행된 메넬리크 2세의 정복 전쟁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종족 관계의 뼈대가 형성되었다. 이후 오랫동안 암하라족-티그레이족 문화가 에티오피아 사회를 지배했다. 1970년대 중반 황제 정권이 몰락하고 들어선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도 종족 집단의 역학 관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1991년에 집권한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은 종족적·언어적 다양성을 관리하고, 종족 갈등을 줄일 목적으로 종족 연방주의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 하에서도 종족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종족 연방주의가 각종 자원을 둘러싼 종족 집단 간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적은 본 연구자가 에티오피아 아셀라 타운에서의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종족 현상을 다층적 맥락에서 고찰하는 데 있었다. 이 글을 통해 본 연구자는 종족 현상에 대한 지역민의 다성적(多聲的) 목소리를 드러내고자 노력하였다.

생태학적 조건, 양대 종족의 숫자상 균형, 빈번한 종족 외혼 및 ‘젓 먹이기’라는 독특한 사회문화적 관행의 영향 등으로 인해, 아셀라에서는 집단적 수준의 종족 갈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이 공동체의 초기 역사에서 광범하게 실천된 ‘젓 먹이기 관행’은 종족 집단 간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관행의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아셀라에서는 지배 종족에 의한 차별과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종족 연방주의를 도입한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것은 종족 연방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대개의 제보자는 종족 외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종족 외혼이 종족 집단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상이한 종족 문화를 습득하고, 사람들 간의 관용 정신을 배양하고, 혼종적(다중적) 종족 정체성을 가진 우수한 2세를 생산하는 데 기여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제보자는 종족 외혼이 그 당사자의 이기적인 선택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종족 정체성을 손상시키므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종족 정체성과 종족 문화를 유지하는 것은 에티오피아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제보자도 있었다.

대개의 아셀라 지역민은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암하라화와 오로모화를 경험했다. 암하라화는 암하라족의 오랜 지배의 산물이며, 오로모화는 이 타운의 정치적 지배 집단인 오로모족에 의한 차별의 산물이다. 상당수의 제보자는 현재 진행 중인 오로모화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 여기고 있는 반면, 일부 제보자는 오로모화를 강제성, 피상성 및 생존 전략의 맥락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에티오피아 사회의 종족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결코 용이하지 않다. 이것은 개별적 종족 구성원과 종족 집단의 존재 조건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데다 지역적 편차도 크기 때문이다. 에티오피아의 종족 관계는 굴곡진 역사적 과정 속에서 배태되고 규정지어져 왔다. 이 글에서 살펴본 아셀라 공동체의 경우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최근에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기저에는 종족 간 오랜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시위는 종족 관계의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함의를 지닌다. 첫째, 종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고양되고 있고, 이에 따라 원래의 종족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침체 상태에 있는 종족-민족주의 운동(ethno-nationalist movement)의 활성화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셋째, 양대 종족인 오로모족과 암하라족이 집단적 연대를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수적으로 절대적 열세이나 중앙 정치 무대에서 핵심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티그레이족이 종족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할 것인지도 흥미를 끈다. 이러한 상황들은 에티오피

이 사회가 종족 문제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과연 에티오피아의 종족 지형(ethnic terrain)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 참고문헌

- 설병수, 「에티오피아의 종족 연방주의와 종족 갈등」, 『한국아프리카학회지』 43집, 2014.
- Aalen, Lovise, “Ethnic Federalism and Self-determination for Nationalities in a Semi-authoritarian State: The Case of Ethiopia,” *International Journal on Minority and Group Rights* 13(2-3), 2006.
- Abbink, Jon, “Ethnicity and Conflict Generation in Ethiopia: Some Problems and Prospects of Ethno-regional Federalism,” *Journal of Contemporary African Studies* 24(3), 2006.
- Abe, Toyin and Olayide Oladeji, “Federalism and Citizenship Dilemmas in Africa: Ethiopia and Nigeria in Comparison,” *Global Journal of Advanced Research* 3(12), 2016.
- Abebe, Ano Alula, “The Luba Basa Institution: The Challenge on Shinasha Identity,” *Science, Technology and Arts Research Journal* 1(2), 2012.
- Abebe, Semahagn Gashu, “The Dilemma of Adopting Ethnic Federal System in Africa in Light of the Perspectives from Ethiopian Experience,” *Journal of African Studies and Development* 4(7), 2012.
- Alba, Richard D. and Reid M. Golden, “Patterns of Ethnic Marriage in the United States,” *Social Forces* 65, 1986.
- Alem, Habtu, “Ethnic Pluralism as an Organizing Principle of the Ethiopian Federation,” *Dialectical Anthropology* 28(2), 2004.
- Amsalu, Desalegn, “Ethiopian Ethnic Federalism: A ‘God-sent’ Opportunity for All Ethnic Groups?” *Modern Africa: Politics, History and Society* 2(2), 2014.
- Asylum Research Consultancy, *Ethiopia COI Query Responses: The Master Plan, OLF Members and Their Family Members, Ill-treatment by State Agents of Oromo Persons Who Are Not Politically Active*, London, 2016.

- Bates, Robert H., "Ethnicity, Capital Formation, and Conflict," Paper presented at the Festschrift Conference for Myron Weiner, Kellogg Institute, University of Notre Dame, September 24-26, 1999.
- Blackhurst, Hector, "Adopting an Ambiguous Position: Oromo Relationships with Strangers," *Being and Becoming Oromo: Historical and Anthropological Enquiries*, ed. by P. T. W. Baxter, Jan Hultin and Alessandro Triulzi, Lawrenceville, N.J.: The Red Sea Press, Inc., 1996.
- Bojicic-Dzelilovic, Vesna, "The Politics, Practice and Paradox of 'Ethnic Security' in Bosnia-Herzegovina," *International Journal of Security & Development* 4(1), 2015.
- Calhoun, Craig, "Nationalism and Ethnici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9, 1993.
- Central Statistical Agency of Ethiopia, *The 2007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of Ethiopia: Statistical Report at Country Level*, Addis Ababa: Central Statistical Agency, 2007.
- Clapham, Christopher, "Centralization and Local Response in Southern Ethiopia," *African Affairs* 74(294), 1975.
- Dejene, Gemechu, "Some Aspects of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among Waliso Oromo of Eastern Macha,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Guma," M.A. Thesis, Addis Ababa University, 2002.
- Eriksen, Thomas Hylland, "The Cultural Contexts of Ethnic Differences," *Man* 26(1), 1991.
-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Constitution of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1995.
- Freedman, Maurice, "Ethnic Puzzles," *New Community* 5(3), 1976.
- Horowitz, Donald L., *Ethnic Groups in Conflic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 Hutchinson, John and Anthony D. Smith, "Introduction," *Ethnicity*, ed. by John Hutchinson and Anthony D. Smi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Hwang, Sean-Shong, Rogelio Saenz and Benigno E. Aquirre, "Structural and Assimilationist Explanations of Asian American Inter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9(3), 1997.
- Jalata, Asafa, "The Oromo in Exile: Creating Knowledge and Promoting Social Justice," *Societies Without Borders* 6(1), 2011.
- \_\_\_\_\_, "Gadaa (Oromo Democracy): An Example of Classical African Civilization," *The Journal of Pan African Studies* 5(1), 2012.
- Jebena, Beresa Abera, "Ethnic Federalism and Democratic Developmental State in Ethiopia: Some Points of Contradi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and Development* 3(7), 2015.
- Kalmijn, Matthijs, "Intermarriage and Homogamy: Causes, Patterns, Trend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998.
- Kymlicka, Will, "Nation-building and Minority Rights: Comparing West and East,"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6(2), 2000.
- La Ferrara, Eliana, "Family and Kinship Ties in Development: An Economist's Perspective," Paper prepared for the Fifth AFD/EUDN Conference, Paris, December 5, 2007.
- Lubo, Teferi, "The Post 1991 'Inter-ethnic' Conflicts in Ethiopia: An Investigation," *Journal of Law and Conflict Resolution* 4(4), 2012.
- Macfarlane, Julie, "Working Towards Restorative Justice in Ethiopia: Integrating Traditional Conflict Resolution System with the Formal Legal System," *Cardozo of Conflict Resolution* 8, 2007.
- Mann, Michael, *The Dark-side of Democracy: Explaining Ethnic Cleans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Maru, Mehari Taddele, "Causes, Dynamics, and Consequences of Internal Displacement in Ethiopia," SWP Working Paper FG 8,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Berlin, 2017.
- Mengistu, Muhabie Mekonnen, "Ethnic Federalism: A Means for Managing or a Triggering Factor for Ethnic Conflicts in Ethiopia," *Social Sciences* 4(4), 2015.

- Mohammadzadeh, Hossien, "The Causes of Ethnic Conflict in Multi-ethnic Societies," *World Scientific News* 42, 2016.
- Robinson, Amanda Lea, "National versus Ethnic Identity in Africa: State, Group, and Individual Level Correlates of National Identification," Prepared for Working Group in African Political Econom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December 11, 2009.
- Ruane, Joseph and Jennifer Todd, "The Roots of Intense Ethnic Conflict May Not in Fact Be Ethnic: Categories, Communities and Path Dependence," ISSC Working Paper 17, Institute for the Study of Social Change, University College Dublin, 2003.
- Ruttan, Lore *et al.*, *Ethnic Interactions: Analysis of a Sample of Boundaries*,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2006.
- Saenz, Rogelio, Sean-Shong Hwang, Benigno E. Aguirre and Robert N. Anderson, "Persistence and Change in Asian Identity among Children of Intermarried Couples," *Sociological Perspectives* 38(2), 1995.
- Seol, Byung-Soo, "The Dynamics of Ethnic Relations in Ethiopia: An Ethnographic Study of Meki Town, Oromia Regional State," 『한국 아프리카학회지』 42집, 2014.
- Tenaw, Zigale Tamir, "Indigenous Institutions as an Alternative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in Eastern Ethiopia: The Case of the Ittu Oromo and Issa Somali Clans," *African Journal on Conflict Resolution* 16(2), 2016.
- Teressa, Cherana, "Indigenous Mechanisms of Conflict Resolution among the Soddo Oromo with Particular Emphasis on *Guma* and *Wada* Practices," M.A. Thesis, Haramaya University, 2016.
- Teshome, Wondwosen and Jan Záhofík, "Federalism in Africa: The Case of Ethnic-based Federalism in Ethiopia,"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Sciences* 5(2), 2008.
- Tsega, Endalew Etefa, *Conflict Resolution through Cultural Tolerance: An Analysis of the Michu Institution in Metekkel Region, Ethiopia*, Addis Ababa: Organization for Social Science Research in Eastern

- and Southern Africa, 2002.
- \_\_\_\_\_, *Inter-ethnic Relations on a Frontier: Matakkaal (Ethiopia), 1898-1991*,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06.
- Ukiwo, Ukoha, "On the Study of Ethnicity in Nigeria," CRISE Working Paper No. 12. Centre for Research on Inequality, Human Security and Ethnicity, University of Oxford, 2005.
- Van Aswegen, Jacobus Gerhardus, "Language Maintenance and Shift in Ethiopia: The Case of Maale," M.A. Thesis, University of South Africa, 2008.
- Vanhanen, Tatu, *Ethnic Conflicts: Their Biological Roots in Ethnic Nepotism*, London: Ulste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2012.
- Vaughan, Sarah, "Ethnicity and Power in Ethiopia,"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Edinburgh, 2003.
- Weinfeld, Morton, "Ethnic Assimilation and the Retention of Ethnic Cultures," *Ethnicity and Culture in Canada: The Research Landscape*, ed. by J. W. Berry and J. A. Laponce,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4.
- Yang, Philip Q., *Ethnic Studies: Issues and Approaches*, New York: State of New York Press, 2000.
- Záhořík, Jan and Wondwosen Teshome, "Debating Language Policy in Ethiopia," *Asian and African Studies* 18(1), 2009.



## 부록

〈부록 1〉 제보자의 인적 사항

이름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종족 배경	교육 수준	직업	종교
Aleme Ashine	남	48	기혼	구라계족	대학원졸	대학교원	정교
Aseffa Cherinet	남	90	기혼	구라계족	초졸	무직	정교
Mogese Teklemariam	남	72	기혼	암하라족	중졸	경비원	정교
Senai Balcha	남	86	기혼	오로모족	초졸	무직	정교
Ayele Zewdu	남	44	기혼	암하라족	중졸	상인	정교
Kaso Gemedu	남	62	기혼	오로모족	고졸	경비원	정교
Sultan Chikako	남	63	기혼	오로모족	고졸	사서	정교
Aynalem Weldesenbet	여	64	기혼	구라계족	고졸	무직	정교
Sinkineh Tilalhun	남	48	기혼	암하라족	대졸	공무원	정교
Farenjo Tadesse	남	61	기혼	오로모족	중졸	공무원	정교
Girma Nega	남	43	기혼	오로모족	대학원졸	공무원	정교
Geremew Megersa	남	55	기혼	오로모족	대졸	교사	정교
Kebede Yami	남	55	기혼	오로모족	디플로마졸	사무원	정교
Hussen Beshir	남	37	기혼	오로모족	대졸	공무원	이슬람교
Esmael Aliyi	남	43	기혼	오로모족	대학원졸	공무원	이슬람교
Sileshi Tefera	남	52	기혼	암하라족	대졸	교사	개신교
Yeshitila Aseffa	남	50	기혼	암하라족	대졸	공무원	정교
Genet Ashime	여	57	기혼	구라계족	고졸	교사	정교
Abebe Atomsa	남	48	기혼	오로모족	대졸	공무원	정교
Amino Edao	남	52	기혼	오로모족	대학원졸	공무원	이슬람교
Beyene Tola	남	49	기혼	오로모족	대졸	공무원	정교
Endeshaw Welde	남	58	기혼	오로모족	대졸	공무원	정교
Tsegaye Fikremariam	남	62	기혼	자이족	고졸	무직	정교
Kinfe Habte	남	66	기혼	구라계족	초졸	상인	정교
Kasech Abera	여	65	기혼	시다마족	무학	상인	정교
Gemechu Balcha	남	58	기혼	오로모족	고졸	상인	정교
Mengistu Tesfa	남	54	기혼	암하라족	대졸	간호사	정교
Degaga Tesfaye	남	57	기혼	구라계족	TTI*	교사	정교
Yewbdar Masresha	여	47	기혼	암하라족	대졸	교사	정교
Kinfe Dejene	남	61	기혼	오로모족	대졸	상인	정교
Genev Hailesilase	남	67	기혼	암하라족	대졸	사무원	정교
Kifle Demboba	남	61	기혼	오로모족	대졸	대학교원	정교
Shewangizaw Tezera	남	37	기혼	암하라족	대졸	상인	정교
Yalemzerf Ashenafi	여	36	기혼	구라계족	고졸	상인	정교
Lidet Chane	여	33	기혼	오로모족	고졸	상인	정교
Mulugeta Tadesse	남	49	기혼	암하라족	대졸	공무원	개신교
Fikadu Huluka	남	63	기혼	구라계족	고졸	재단사	정교
Mindaye Kibret	남	53	기혼	암하라족	초졸	경비원	정교

\* TTI는 Teachers' Training Institute(교사 양성소)의 약어이다. 이곳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 교사가 되길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1년간 교육을 실시한다.

❖ ABSTRACT

The Multi-layered Context of the Ethnic Phenomenon:  
Focused on the Case of Asella Town, Ethiopia

Seol, Byung-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thnic phenomenon in the multi-layered context, based upon data collected from my fieldwork in Asella Town, Ethiopia. The town has experienced few ethnic conflicts at the collective level because of ecological conditions, the numerical balance between the two major ethnic groups—i.e., the Oromo and the Amhara—, frequent ethnic intermarriages as well as effects of a unique sociocultural practice of ‘breast-feeding.’ However, despite positive influences of such a practice, the local community has continuously witnessed discrimination and threats by the dominant ethnic group. Most of my informants feel that ethnic intermarriage contributes to: ( i ) enforcement of bonds among both ethnic groups and community members, ( ii ) acquisition of different ethnic cultures, ( iii ) cultivation of the spirit of tolerance among people, and ( iv ) production of the superior second generation that has hybrid/multiple ethnic identities. However, some informants harbor negative attitudes towards ethnic intermarriage because they perceive it as a selfish choice of two parties and damages ethnic identity. Most informants consider ongoing Oromonization as natural, whereas others insist that it should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coercion, superficiality and survival strategy.

Key Words : Asella Town, breast-feeding practice, ethnic discrimination, ethnic intermarriage, ethnic identity, Oromonization

- 논문접수일 : 2017. 8. 10
- 심사완료일 : 2017. 8. 31
- 게재확정일 : 2017. 9. 1

